

번역과 언어간섭*

- ‘가짜동족어(false friends)’를 중심으로 -

오경순**
ksohlee@naver.com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2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 |
| 2. 언어간섭 현상 | 4.3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 |
| 3. 한·일 한자어 구성 비율 | 5. 번역문 속 ‘가짜동족어(false friends)’ |
| 4. 한·일 한자어 어의(語義) 비교 | 6. 마치며 |
| 4.1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 |

主 題 語: 번역(Translation), 언어간섭(Language Interference), 가짜동족어(False Friends), 한·일 한자어(Chinese Character in Korean and Japanese), 어의(Lexical Meaning), 오류(Error), 오용(Misuse), 번역교육(Translation Education)

1. 시작하며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중·일 세 나라는 동일한 한자어라도 한·중·일3국에서 쓰이는 의미가 각기 다르거나 한·중·일 어느 한쪽에는 아예 의미가 없는 한자어도 많다.

아래 <표1>은 위에 해당하는 한·중·일 한자어의 대표적 예의 일부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88824)

** 가톨릭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일어일본문화전공 겸임교수

<표1> 한·중·일 한자어¹⁾ 의미

한자어	한국어 의미	중국어 의미	일본어 의미
愛人	연인(戀人)	배우자	내연 관계의 이성
石頭	머리가 나쁜 사람	돌	완고한 사람
手紙	없음	휴지	편지
八方美人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	팔방에서 온 미인	신뢰할 수 없는 사람
生鮮	신선한 물고기. 선어(鮮魚)	신선한 물고기. 선어(鮮魚)	싱싱함. 신선함
工夫	배우고 익힘. 공부	시간. 틈. 여가	고안. 궁리
家内	가족. 집안. 가까운 일가	가족. 집안. 일가	아내. 처
親分	아주 가깝고 친밀한 정분	없음	두목. 우두머리
梅雨 ²⁾	없음	장마	장마
親子	친아들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식
老婆	늙은 여자	처. 아내. 마누라	늙은 여자
汽車	기차	자동차	기차
甘藷	감자	고구마	고구마
脫毛	털이 빠짐. 빠진 털	털이 빠짐. 털갈이	제모
退學	제적당함. 징계 처분	퇴학 처분	자퇴

한·일 한자어로 범위를 좁혀 위 <표1>에서 제시한 ‘脫毛’와 ‘退學’의 한·일 의미 차를 살펴보자.

먼저 ‘脫毛’를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 ‘탈모(脫毛)’는 ‘털이 빠짐. 또는 그 털.’³⁾의 의미이다. 그러나 일본어 ‘脫毛’는 「毛の抜けること。ぬけ毛。美容のために不要の体毛を取り去ること。」⁴⁾ 혹은 「毛が抜けること。むだ毛を取り去ること。」⁵⁾의 의미이다. 요컨대 일본어 「脫毛」

1) 본고에서는 ‘한자어(漢字語)’라는 용어로 쓰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漢字語’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漢語’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본고 <표1>, <표7>, <표8>에서 제시한 일본 한자어에는 아래 (예)처럼 일본고유어(和語)와 혼종어(混種語)로 분류되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예) 石頭(いしあたま)←和語/ 手紙(てがみ)←和語/ 梅雨(つゆ)←漢語/ 馬鹿(ばか)←漢語/

取引(とりひき)←和語/ 心地(こち)←混種語/ 無用(むよう)←漢語/ 長物(ちょうぶつ)←漢語

2) 새국어사전에는 ‘매우(梅雨)’는 ‘매실이 익어서 떨어질 무렵에 오는 비라는 뜻’으로 ‘유월 중순께부터 칠월 초순께까지 지는 장마’를 이르는 말로 나와 있지만 ‘장마’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한자어 표기가 없다. ‘장마’는 순수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4) 『広辞苑』

5) 三省堂WebDictionary(<http://www.sanseido.net/User/Dic/Index.aspx?TWords=%e8%84%b1%e6%af%9b&st=0&DORDER=161715&DailyJJ=checkbox&DailyEJ=checkbox&DailyJE=checkbox>)

의 의미에는 한국어의 ‘탈모(脫毛)’ 의미 외에도 ‘불필요한 털을 제거하다’의 ‘제모(除毛)’의 의미도 포함된 한자어이다. 따라서 한국어 ‘미용 제모 완료 코스’의 정확한 일본어 표현은「美容脱毛完了コース」이다. 역으로 일본어「美容脱毛完了コース」의 올바른 한국어 역은 ‘미용 탈모 완료 코스’가 아닌 ‘미용 제모 완료 코스’가 되므로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나 일본인 한국어학습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일 한자어 ‘退学’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퇴학(退学)’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리는 징계 처분의 하나.’⁶⁾의 뜻으로 ‘학생에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징계’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제적당함’의 뜻이다. 한편 일본어「退学」의 의미는 「中途で学校をやめる(やめさせられる)こと。」⁷⁾ 혹은 「学生・生徒が、規定の年限を終わらずに学校をやめること。また、学校側から強制的にやめさせること。退校。」⁸⁾의 뜻이다. 즉 학생이 정해진 수업연한을 마치지 않고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는 ‘자퇴(自退)’의 의미와 학교 측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퇴학(退学)’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 일본인의 이력서에 「博士課程単位取得満期退学」(박사과정 단위취득 만기 퇴학)이라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박사과정은 수료하였으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었다’는 뜻이다. 요컨대 한국어로 ‘자퇴(自退)’에 해당하는 말이다.

‘脱毛’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退学’의 경우도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나 일본인 한국어학습자는 오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어간섭 현상으로 인해 한일 양 언어의 활용, 운용 및 구사 시 자칫 오류를 범하기 쉽다. 나아가 한일, 일한 번역 시에도 오역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번역작업 및 번역 교육 현장에서 오류와 오용의 소지가 많은 한일 한자어 가운데 특히 형태는 같지만 어의(語義 lexical meaning)가 다른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⁹⁾인 ‘가짜동족어’에 주목하여 언어간섭과 관련지어 분석·고찰한 것이다.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7) 三省堂WebDictionary(<http://www.sanseido.net/User/Dic/Index.aspx?TWords=%u9000%u5b66&st=0&DORDER=161715&DailyJJ=checkbox&DailyEJ=checkbox&DailyJE=checkbox>)

8) 『広辞苑』

9) 형태는 같지만 어의(語義 lexical meaning)가 다른 한자어인 ‘가짜동족어’를 일본 언어학에서는 「翻訳者の偽りの友(faux-amis du traducteur/ false friend of translator)」혹은 간단히 줄여「偽りの友(faux-amis ‘フォーザミ’ / false friend)」로 부른다. 또는 연구자에 따라 「欺瞞的同義語(deceptive cognate)」혹은 「偽同義語」로 칭하기도 한다. <오경순(2009:52)>

2. 언어간섭 현상

일본인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한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와 달리 들리고 달리 보이는 것은 일본인의 모국어인 한국어학습과 한국어구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구사하는 일본어가 일본인이 구사하는 일본어와 달리 들리고 달리 보이는 것은 한국인의 모국어인 일본어학습과 일본어구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2 언어 습득과정에서 나타나는 모국어의 학습방해나 학습장애 현상이 언어간섭 현상이다.

아래 예(1)은 국내 일본어 관련 모 학회에서 일본어로 작성한 <Newsletter>에 실린 글이다.

(1) 「平生會費 納付會員 名簿」

‘평생회비(平生會費)’는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평생에 한 번 내는 회비로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평생회원으로 간주되는 회비’의 뜻으로 기관이나 단체, 학회 등에서 아래 예(2)처럼 통용되는 말이다.

(2) ‘평생회비(平生會費)’ 납부 관련 알림 건

‘평생회비(平生會費)’ 미납 회원

‘평생회비(平生會費)’ 납부 계좌

그러나 한국어 ‘평생회비(平生會費)’를 일본어로 그대로 「平生會費」로 기술한 위 예(1)의 <Newsletter> 글은 한국인이 익히 알고 있는 ‘平生會費’란 의미가 일본어구사에 간섭해서 나타난 오류라 할 수 있다.

가령 일본 사람이 위 <Newsletter>의 「平生會費」란 말을 접한다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인 ‘平生會費’의 한국어 의미에 부합하는 일본어는 「終身會費」 혹은 「生涯會費」이다. 따라서 위 예(1)의 정확한 일본어 표현은 「終身會費 納付會員 名簿」 혹은 「生涯會費 納付會員 名簿」로 써야 맞다. 또한 아래 예(3)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평생회원’ ⇨ 「終身會員」

‘평생보험’ ⇨ 「終身保險」

‘平生会費’처럼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오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히 인식하고 심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

또 다른 예로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자칫 오용을 범하기 쉬운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로 ‘卒業’과 ‘修了’를 들 수 있다. ‘卒業’과 ‘修了’도 한·일 양국에서 사용하는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이다.

먼저 한국어 ‘졸업(卒業)’은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 과정을 마침.’¹⁰⁾의 의미이며, ‘수료(修了)’는 ‘일정한 학과를 다 배워 끝냄.’¹¹⁾의 의미이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만으로는 ‘卒業’과 ‘修了’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사용하는 ‘졸업(卒業)’과 ‘수료(修了)’의 의미와 일본의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사용하는 ‘졸업(卒業)’과 ‘수료(修了)’ 의미는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과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최종 관문인 논문 심사까지 통과한 경우를 ‘졸업(卒業)’이라 칭한다. 한편 대학과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과 과정을 전부 이수했으나 논문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수료(修了)’라 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석사 학위,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면 ‘졸업(卒業)’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 「卒業」이란 용어는 일단 대학 학부를 졸업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대학원 졸업의 경우는 「卒業」이 아닌 「修了」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일본 대학원의 경우 소정의 교과 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최종 관문인 논문 심사까지 통과 완료했을 경우 「卒業」이 아닌 「修了」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 한일 양국에서 사용하는 ‘卒業’과 ‘修了’의 큰 상이점이다.

가령 어느 일본인 명함에 「○○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修了」라고 되어있다면 한국인은 자칫 한국어 ‘수료(修了)’의 의미로 간주하여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수료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는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인 ‘修了’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의미로만 이해한 언어간섭 현상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간섭(interference)이란 “두 자연언어가 접촉했을 때, 그 효과로 한쪽 또는 양쪽 언어에서 일어나는 규범 이탈이나 규범 변경을 가리킨다.”(고종석, 2006)

“대조분석 가설(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에서는 학습에 장애 요인이 되는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를 더 중요시하는데, 부정적 전이는 일반적으로 간섭현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1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목표어에 대한 모국어의 학습방해를 의미한다. 간섭의 종류는 언어 간(interlingual) 간섭과 언어 내(intralingual) 간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언어 간 간섭 중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인하여 제2 언어 학습 시 방해가 일어나는 것이 배제적 간섭이다.”¹²⁾

“언어간섭의 방향은 제2 언어 습득과정에서 주로 출발 언어인 모국어에서 목표 언어인 제2 언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¹³⁾ 그러나 언어간섭 현상은 제2 언어 습득과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목표 언어인 제2 언어에서 출발 언어인 모국어로 요컨대 역방향으로도 언어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구조와 표현 구조, 어순 등 통사구조 및 언어 운용 면에서 많은 유사성이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 언어간섭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¹⁴⁾ 따라서 한일, 일한 양방향의 언어간섭 현상은 담화 구사 및 작문 운용, 표현활용 면에서는 물론 번역작업 및 번역 교육 현장에서도 오용 및 오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한·일 한자어 구성 비율

“한국어와 일본어는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있고 60% 이상 동일한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다.”(木村益夫, 1965:75) 국어사전의 어휘별 구성 비율을 검토 조사한 결과인 <표2>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자어는 국어 어휘의 약 50%~70%를 차지하고 있다.”(김광해, 1993:112)

<표2> 국어 어휘별 구성 비율¹⁵⁾

사 전	큰사전(한글학회, 1957)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1961)
고유어	74,612(45.46%)	62,912(24.4%)
한자어	85,527(52.11%)	178,745(69.32%)
외래어	3,986(2.43%)	16,196(6.28%)
합 계	164,125	257,853

12) 박경자 외(1994) 『언어 교수학』 박영사,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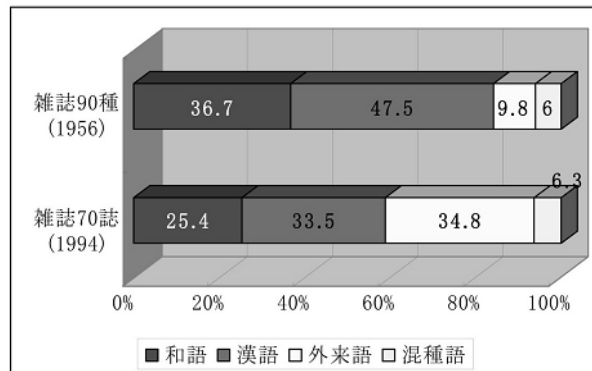
13) 박경자 외(1994) 『언어 교수학』 박영사, p.136

14) 오경순(2009) 「韓日 兩言語의 翻譯과 ‘가짜동족어(false friends)’」 『日本近代學研究』 第25輯, p.54

15) <국어사전 어종별 낱말수목 비율>: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p.111

한편 일본어 어휘 구성 중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1956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쳐 잡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어휘 조사를 실시했다. 1956년 잡지 90종을 조사한 통계 결과와 1994년 잡지 70종을 조사한 통계 결과가 있다. 이는 「異なり語数(개별어수)」와 「延べ語数(전체어수)」¹⁶⁾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이다. 아래 <표3>을 보면 「異なり語数(개별어수)」의 한자어 비율은 1956년 47.5%에서 1994년 33.5%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3> 語種の構成(異なり語数)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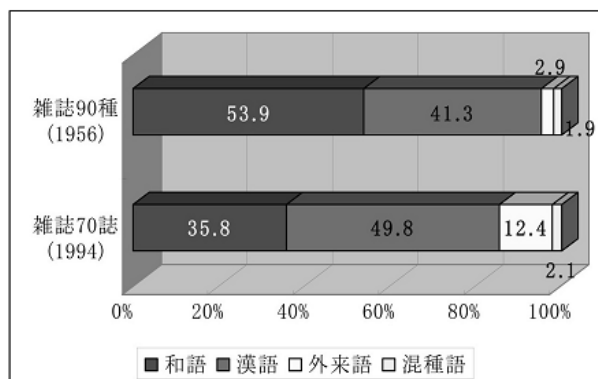


(助辞及び人名・地名を除く)

또한 <표4>를 보면 「延べ語数(전체어수)」의 한자어 비율은 1956년 41.3%에서 1994년 49.8%로 증가하였다.

16) 異なり語数とは、ある言語作品などがいくつの異なった語でまかなわれているかを示す数で、語のヴァリエティの多さを示すものである。一方延べ語数は、異なっているかどうか注目せず、使われている語の延べ度数をいう。例えば、「出た出た月が」の例で、延べ語数は6であるが、「出る」と「た」が重なっているため、異なり語数は「出る」「た」「月」「が」の4である。日本語教育学会編(1997)『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p.293

17) 山崎誠(国立国語研究所)「国立国語研究所の語彙調査の歴史と課題」第12回研究会, 東京大学教育学部第一会議室(2006.11.30)

<표4> 語種の構成(延べ語数)¹⁸⁾

(助辞及び人名・地名を除く)

또 한 가지 예로 현대 일본어 어종분포(現代日本語の語種分布) 연구조사 결과가 있다. 이 조사는 메이지(明治)에서 쇼와(昭和)에 걸쳐 세 가지 국어사전 『言海』(明治22年 ; 1889年), 『例解国語辞典』(昭和31年 ; 1956年), 『例解国語辞典』(昭和44年 ; 1969年)에 수록된 어휘의 어종별 분포 통계 연구조사이다. 총 어휘 수는 『言海』39,103개, 『例解国語辞典』40,393개, 『角川国語辞典』60,218개이다.

아래 <표5>는 현대 일본어 어종분포 연구조사 결과이다.

<표5> 現代日本語の語種分布¹⁹⁾

	和語	漢語	外来語	混種語
『言海』	55.8%	34.7	1.4	8.1
『例解国語辞典』	36.6	53.6	3.5	6.2
『角川国語辞典』	37.1	52.9	7.8	2.2

잡지를 대상으로 한 <표3>과 <표4>의 통계 결과와 세 가지 사전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5>의 통계 결과를 감안할 때 일본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유추는 가능하다. 개별어수(異なり語数)와 전체어수(延べ語数) 구분 없이 일본어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적게는 약 30%에서 많게는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18) 山崎誠(国立国語研究所) 「国立国語研究所の語彙調査の歴史と課題」 第12回研究会, 東京大学教育学部 第一会議室(2006.11.30)

19) <http://user.keio.ac.jp/~rhotta/hellog/2013-10-28-1.html>

수 있다.

4. 한·일 한자어 어의(語義) 비교

한·일 한자어 어의(語義) 비교는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란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말한다.

둘째,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란 한·일 양국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를 말한다.

셋째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란 한·일 양국에서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가 다른 한자어를 말한다. 본고에서 고찰하는 ‘가짜동족어’란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4.1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란 한·일 양국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이다. 한·일 한자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자어이다. 아래 <표6>은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예의 일부이다.

<표6> 한·일 동형동의(同形同義) 한자어

放送	産業	通知
風船	場所	浪費
学校	各自	事故
確實	影響	發明
意識	科学	室内
学校	社会	交易
扇風機	食品	同窓
教科書	創業	日曜日

主義	新人	殘業
活動	美人	過剩
以上	外出	現金
親切	理由	民家
夫婦	研究	惡魔
延期	失敗	料理師
交際	常識	家族
約束	化粧	情報

4.2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란 한일 양국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이다. 아래 <표7>은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의 일부 예이다.

<표7>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

한자어 의미	한국 한자어	일본 한자어
천재지변	天災地變	天変地異
중상모략	中傷謀略	誹謗中傷
불심검문	不審檢問	職務質問
신호위반	信號違反	信号無視
무용지물	無用之物	無用の長物
인사사고	人事事故	人身事故
남녀노소	男女老少	老若男女
동서고금	東西古今	古今東西
주방보조	廚房補助	調理補助
남편	男便	夫
채소	菜蔬	野菜
현모양처	賢母良妻	良妻賢母
정상회담	頂上會談	首腦會談
바보	菽麥	馬鹿
화초	花草	草花
편지	便紙	手紙
거래	去來	取引
전당포	典當鋪	質屋

대답	回答	返事
준비	準備	用意
자기	自己	自分
환절기	換節期	季節の変わり目
방해	妨害	邪魔
표	票	切符
감기	感氣	風邪
친구	親舊	友達
안면	顔面	面識
복도	複道	廊下
목욕	沐浴	風呂
방	房	部屋
부자	富者	金持
과실	果實	果物
상의	上衣	上着
흑백	黑白	白黒
약혼	約婚	婚約
시종일관	始終一貫	終始一貫
미풍양속	美風良俗	良風美俗
대서특필	大書特筆	特筆大書
궁합	宮合	相性
내일	來日	明日
별명	別名	仇名
환갑	環甲	還曆
우표	郵票	切手
접수	接受	受付
식단	食單	献立
경우	境遇	場合
여론	輿論	世論
각자부담	各自負擔	割勘
자식	子息	子供
고생	苦生	苦勞
삼촌	三寸	伯父
질병	疾病	病氣
화투	花鬪	花札
소문	所聞	噂

일기(예보)	日氣	天氣
우비	雨備	雨具
목수	木手	大工
수영복	水泳服	水着
표	票	切符
시간표	時間表	時間割
화분	花盆	植木鉢
식모	食母	女中
미국	美国	米国

아래 예(4)는 번역작업 및 번역 교육 현장에서 오류로 이어지기 쉬운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의 번역 예이다.

- (4) 彼はちょっと歳を食った大学院生になったわけだけど、その頃、街中でふつうに自転車に乗っているだけなのに、しょっちゅう警察官に呼び止められて職務質問をされたのだという。「日本では、三十路に近い男が昼間からぶらぶらしていると、どこの会社にも所属していないわけのわからない人間として警察のセンサーにひっかかるんです」「ある意味完成された監視社会ですよ〜」と言っていた。『魂の退社, p.203』

그는 나이 좀 먹은 대학원생이 된 셈이지만 그 당시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 뿐인데도 종종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불심검문을 당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서른 다 된 남자가 대낮부터 빈둥거리기라도 하게 되면 아무런 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인간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센서에 걸리나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시 사회 완결판과도 같지 않나요~”라고 말했다.²⁰⁾

일본어「職務質問」이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이상한 거동, 기타 정황으로 판단해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인물 등을 거리에서 불러 세워 실시하는 질문’²¹⁾을 뜻한다. 이는 한국어로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여 의심 받을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의 의미인 ‘불심검문(不審檢問)’에 해당하는 말이다. 「職務質問」 외에 불심검문을 뜻하는 일본어로「不審尋問」이란 한자어도 있다.

20) 제시한 한국어 역은 필자 역임.

21) 「警察官職務執行法に基づき、警察官が、挙動の不審な者や他人の犯罪事実を知っていると認められる者を呼び止めて質問すること。職務。」

(<http://dictionary.goo.ne.jp/jn/111155/meaning/m0u/%E8%81%B7%E5%8B%99%E8%B3%AA%E5%95%8F/>)

위 예(4)처럼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 역시 언어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한·일 이형동의(異形同義) 한자어이므로 심분 유의해야 한다.

4.3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

일본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및 일본어학습과 한국어학습 현장에서 한·일, 일·한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간섭 현상 중 하나로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인 ‘가짜동족어’²²⁾를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전혀 다른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를 중심으로 고찰분석하였다.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 중에서 어의(語義)의 폭에 차이가 있는 한자어들도 ‘가짜동족어’ 범위에 포함하여 고찰하였다. 즉 본고에서 고찰하는 ‘가짜동족어’란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테면 ‘分数’는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고 있지만 한국어 ‘分数’에는 일본어에 없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²³⁾의 의미가 추가된다. 즉 일본어에 비해 한국어 어의(語義) 폭이 넓은 한자어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어 「上品」은 「上品な人の特徴」에서처럼 사람을 지칭할 때도 쓰인다. 즉 한국어에는 없는 ‘(사람이) 품격 있고 고상함, 품위가 있음’의 의미가 일본어에 추가된다. 즉 한국어보다 일본어의 어의(語義) 폭이 넓은 한자어라 할 수 있다. ‘分数’나 ‘上品’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전혀 다른 뜻이 추가되는 ‘가짜동족어’의 의미에는 표로 표시하였다.²⁴⁾

<표8> ‘가짜 동족어’²⁵⁾

가짜 동족어 (false friends)	일본어 의미	한국어 의미
内外	内と外。国内と国外。前後。	안과 밖. 국내와 국외. (수량, 시간 따위에 이어) 그에 가까움. 부부

22) 우리말에는 ‘false friend’나 ‘faux amis’의 정확한 번역어가 아직 없다. 연구자에 따라 ‘나쁜 친구들(false friends, faux amis, falsche freunde)(박여성, 2002a)’, ‘포자미(false friends, faux amis)(조상은, 2004)’, ‘가짜 친구(Faux amis)(고종석, 2006)’, ‘거짓 짝, 사이비 친구(이희재, 2009)’ 등으로 달리 부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가짜동족어(false friends, faux amis)’라 부르기로 한다.

2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4) ‘가짜 동족어’ 고찰을 위해 사용한 한일 사전은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연세한국어사전』(1998), 『동아새국어사전』(2004), 『広辞苑』(1987), 『新明解国語辞典』(1997), 『日本国語大辞典』(2003)

25) <표8>에서 제시한 ‘가짜동족어’ 예는 줄고(2009)에서 제시한 예를 포함하여 이후 최근까지 추가 조사한 예를 종합한 것이다.

見物	名所や催し物などを見ること。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쓰임.
天地	天と地。世界。 (本や荷物などの)うえした。	하늘과 땅. 세상. 우주. (‘~천지’의 꼴로)무척 많음.
迷惑	他人からやっかいな目に あわされて困ること。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헛갈려 갈팡질팡 헤매. 현혹(眩惑).
生鮮	新しく生き生きしていること。 新鮮。	잡은 그대로의 신선한 물고기. 선어(鮮魚).
長短	長所と短所。 長いことと短いこと。長さ。	리듬.
女中	住み込んで炊事掃除などの用を する人。お手伝いさん。	여자중학교의 약칭.
大丈夫	立派な男。 危なげなくしっかりしているさま。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文句	文章中の語句。 相手に対する 言い分や苦情。	글의 구절.
親子	親と子。転じて、親と子の関係にたとえら れる二つのもの。親類。	친아들. 친자식.
心中 ²⁶⁾	心の中。 相愛の男女がいっしょに自殺す ること(情死)。 打ちこんでいる仕事や組織などと運命を ともにすること。	마음속.
心地	気持。心境。 心のおきどころ。	마음의 본바탕. 마음자라심전(心田).
分数	ぶんすう。	분수. 자기의 처지에 맞는 한도.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去来	去ることと来ること。行き来。 過去と未来と現在。 すなわち三世の称。	주고받음 또는 사고 팔. 오고가는 일. 왕래. (佛家) 과거와 미래를 아울러 이르는 말.
用心	心を用いること。注意。	정성스레 마음을 씀.
用意	意を用いること。心づかい。 注意。準備。したく。 競技の開始の構えをととのえ させる合図の声(一どん)。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뜻. 마음의 준비를 함.
病身	弱くて、病気がちな体。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無念	口惜しく思うこと。残念。	감정이나 생각하는 마음이 없음.
遠慮	人に対して言語行動を 控え目にする事。	먼 앞일까지 미리 잘 헤아려 생각함.

家内	一家の内。家族。 他人に対して自分の妻をいう語。	집의 안. 가족. 집안. 가까운 일가
愛人	情夫情婦など特別な関係にある異性を遠回しに言う語。	연인 (戀人).
浮気	異性とも一時的に愛欲関係を持つこと。他の異性に心を移すこと。	몸이 부은 상태.
工夫	色々考えて良い方法を得ようとする事。	공부.
學院	学校の異称。ミッションスクールや各種学校という場合が多い。	학원.
学生	学業を修めるるもの。特に、大学で学ぶもの。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사람. (초, 중, 고, 대학생)
修士	大学院で修士論文の審査に合格したものに授与。マスター。	가톨릭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남자. 수도사.
内服	薬を飲むこと。内用。	내의 (內衣). 약을 먹음.
親分	仲間の間で、かしらとなる人。特に、博徒などの頭分。親方。	아주 가깝고 친밀한 정분.
書房	書店。書齋。	남편 (男便).
黒幕	黒色の幕。かげにあつて画策したり指図したりする人。	검은 장막. 음흉한 내막.
成敗 ²⁷⁾	さばくこと。政治を行うこと。処罰。こらしめること。斬首。	성공과 실패.
觀念	経験した物事が、頭の中で固定的に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もの。あきらめること。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 인식. 의식의 내용.
来日	外国人が日本へ来ること。	내일.
平生	普段。平常。平素。	일생 (一生).
外面	外部に向いた面。うわべ。そと側。	겉길면. 얼굴을 돌리다. 모르는 체하다.
台帳	帳簿。原簿。 演劇映画などの台本。	장부(帳簿). 원부(原簿).
洋服	西洋風の衣服。(和服)	정장(正装).
曖昧	はっきりしないこと。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 희미하여 분명하지 아니함.
億劫	面倒くさくて気が進まないこと。	무한하게 오랜 시간.

26) 일본어 ‘心中’를 ‘しんちゅう’ 로 읽으면 한국어와 같은 ‘마음속’이라는 의미이나, ‘しんじゅう’로 발음하면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뜻이다. 원래 ‘しんじゅう’는 마음속에 품은 충성심이나 사랑을 확인하는 의미였다. 그러던 것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된 두 남녀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것도 ‘しんじゅう’라는

皮肉	皮と肉。転じて、からだ。 意地悪く、遠回しに相手の弱点などをつ くこと。ぐあいの悪いことばかり起こる 様子。	가죽과 살 (皮肉).
八方美人	誰に対しても如才なくふるまう人を 輕んじて言う語。	여러 방면에 능통한 사람.
手当て	報酬。用意。準備。 心付け。(病氣やけがなどに対する)処 置。	보수(報酬). 품삯.
年中	一年の間。明け暮れ。 絶えず。始終。	한 해 동안.
解体	(一つにまとまったものを) ばらばらにする。解剖。	뜯어서 해침.
丁寧 ²⁸⁾	注意深く心がゆきとどくこと。 また、てあつく礼儀正しいこと。	(부사) 틀림없이. 꼭. 진정으로. 정말로.
上品	品のよいこと。気品のあるさま。	상품. 물건의 질이 좋음.
下品	品の悪いこと。げびたさま。	하품. 물건의 질이 나쁨.
人事	人間に関する事柄。 個人の身分・能力に関する 事柄。人事異動の略。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사람의 관리에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 안부를 묻거나 공경하는 뜻을 나타낼 때 하는 예.
光栄	栄えあること。誉れ。名誉。	빛나는 영예. 영광(榮光).
意見	ある問題についての個人の 考え。教えさとすこと。忠告。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砂糖	サトウキビ、サトウダイコンなど から製し、甘味料として重要。	(설탕 따위를 끓여 만든) 사탕.
売切	売り切ること。売り尽くすこと。	물건이 다 팔리고 없음. 팔다가 남더라도 반품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한데 몰아서 사는 일.
別別	それぞれ違っていること。一緒ではないこ と。	보통과는 다른 갖가지의.
天氣	気象状態。晴天。天皇の機嫌。	대기의 기상 상태, 일기. 하늘에 나타나는 기운이나 조짐
安寧	無事でやすらかなこと。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함. 인사말
利益 ²⁹⁾	事業などをして得るもうけ。利潤。 仏の教えに従うことによって幸福・恩恵 が得られること。また、神仏から授かる恵 み。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롭고 보탬이 되는 일.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する’ 동사의 형태로 일이나 조직 등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도

細工	手先を使って細かい器物などを作ること。 また、作ったもの。 とりつくろったり、ごまかしたりすること。また、そのたくらみ。	잔손질을 많이 들여 하는 정밀한 수공
廊下	建物の中の部屋と部屋をつなぐ細長い通路。	건물 내부의 긴 통로 하인들이 거쳐하는 방. 행랑.
自慢 ³⁰⁾	自分で、自分に関係の深い物事を褒めて、 他人に誇ること。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
助手	仕事の手助けをする人。 大学で、教授・准教授・助教の職務を助ける職。	일을 보조하는 사람.
到底 ³¹⁾	どうやってみても。どうしても。 つまるところ。つまり。	주로 ‘도저히’로 쓰여 아무리 하여도 끝내. ‘도저하다’로 쓰이면 ‘아주 깊고 철저하다’의 뜻.
義理	物事の正しい筋道。人として守るべき正しい道。道理。すじ。 血族でないものが血族と同じ関係を結ぶこと。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
黒山	人が大ぜい群がり集まっているさまをいう語。	검은 산.
道化	人を笑わせるようなこっけいな身ぶりや言葉。また、それをする人。 おどけ。	도(道)로써 바른길로 이끌.
青魚	背の色の青い魚。 サンマ・イワシ・サバなど。	생선의 한 종류. 생선이름 칭어.
唐突	だしぬけであること。 また、そのさま。突然。不意。	당돌. 뒷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버릇이 없고 주제넘다.
年生	学年	특정한 해에 태어남.
嵐	荒く激しく吹く風。	람(嵐) 아지랑이
弱音	弱々しい声音。いくじのない言葉	약한 음. 작은 소리.
御覧	「見ること」の尊敬語	임금이 봄.
加減	加えることと減らすこと。調節すること。 程度。具合。傾向。気味。	더하기와 빼기.
和風	穏やかな風。日本風。	부드럽고 산뜻함 바람.
女形	歌舞伎で、女の役をする男役者。女形人形。	여자같이 보이는(남자)모습.
都合	合計。なりゆき。具合。やりくり。	모두 합한 수효

夢中	夢を見ている間。夢の中。 (物事に熱中して)我を忘れること。	꿈속.
花房	房のようになって咲く花。 「蓐(がく)」に同じ。	꽃집.
前方	まえの方。前面。後方。 前部が四角いこと。	앞쪽. 적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
音痴	音程や調子が外れて歌を正確にうたえない こと。あることに関して感覚が鈍いこ と。また、その人。	음에 대한 감각이 둔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노래가 서투름. 또는 그러한 사람.
男親	男のほうの親。父親。父。	남자 친구의 준말.
女親	女のほうの親。母親。母。	여자 친구의 준말.
色気	色の加減。色の調子。色合い。異性 に対する関心や欲求。色情。	성적 매력.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욕구.
一途	他を考えないで、一つのことに打ち込む こと。また、そのさま。ひたすら。ひ たむき。一つの方法。	한 가지 길이나 방법.
不自由	思うようにならないこと。不便なこと。	자유롭지 못함.
洒落	物事にこだわらず、さっぱりしているさ ま。しゃれているさま。いき。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함.
小金	ちょっとした財産。少額の金銭。	대금보다 작은 국악 타악기의 한 가지.

5. 번역문 속 ‘가짜동족어(false friends)’

아래 예(5)~예(18)은 위 <표8>에서 제시한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인 ‘가짜동족어’의 일한·한일 번역 예이다.

있다.

- 27) 일본어 ‘成敗’를 ‘せいはい’로 읽으면 한국어와 같은 ‘성공과 실패’라는 의미이나 ‘せいはい’로 발음하면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처벌함, 참수, 정치를 행함, 재판함’의 뜻이다.
- 28)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명사로 ‘대하는 태도가 친절함, 충고하거나 알리는 태도가 매우 간곡하며 여러 번 되풀이함’의 의미와 ‘정녕하다’의 형태로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 29) 일본어 ‘利益’을 ‘りやく’로 읽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은혜’ 혹은 ‘신불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의미이다.
- 30) 일본어 ‘自慢’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우쭐거리며 뽐냄’의 의미도 있으나 ‘자기와 관계가 깊은 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남에게 뽐내는 것’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더욱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노래자랑대회는 ‘喉自慢大会’, 솜씨자랑은 ‘腕自慢’, 고향자랑은 ‘お国自慢’ 등이다.
- 31) 한국어에서는 ‘도저한 냉소주의와 허무주의’ ‘도저한 깨달음’ ‘도저한 작가정신’ ‘도저한 저항’ ‘도저한 사유’ 등의 표현으로 종종 쓰인다.

번역작업이나 번역 교육 현장에서 자칫 오역이나 오류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학습자나 교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5) 列車は午前十一時に横浜ステーションへ到着した。神奈川県民への勅語など式典のあと、正午に再び典が厳かに執りおこなわれたのであった。列車の周りに黒山となって集まった民衆は、“汽車もさぞ、あんなものを引っ張って骨が折れただろう” “ああ、暑いからあんなに汽車が汗をかいてら、さぞ暑かろうな”などと、口々に感想を言い合ったという。

『教科書が教えない日本史の名場面, 第62章』

열차는 오전 11시에 요코하마 역에 도착했다. 가나가와 현민에게 천황의 말을 전한 의식행사 후인 정오에 또다시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오후 1시에 신바시로 돌아왔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모두 감동하는 가운데 기차 개통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열차 주변에 운집한 시민들은 “기차도 필시 저런 무거운 것을 끌고 다녀서 고생했을 거야” “아, 더우니까 저렇게 기차가 땀을 흘리고 있구면, 오죽이나 더울까” 하면서 저마다의 느낌을 주고받았다고 한다.³²⁾

위 예(5)에서 일본어 「黒山」는 「人が大ぜい群がり集まっているさまをいう語。」³³⁾의 의미이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듦’을 뜻하는 한국어로 ‘운집하다’의 의미와 같다. 그러나 언어간섭으로 인해 자칫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는 ‘흑산(黒山)’으로 간과하여 ‘검은 산’으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가짜동족어의 예이다.

- (6) あなたにお目にかかれて大変光栄に存じます。
당신을 만나 뵈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 (7) 私の作った料理を食べてもらって光栄です。
내가 만든 요리를 잡수어주셔서 영광입니다.
- (8) 彼はオリンピックで金メダルの栄光を手に入れた。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손에 넣었다.

한국어 ‘영광’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栄光」가 아니라 「光栄」라는 것은 대체로 주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한국어 ‘영광’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어느 경우든 「光栄」이고, 일본어에 「栄光」란 한자어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한국인 일본어학습자나 일본인 한국어학습자가

32) 한국어 역은 필자 역임.

33) <http://dictionary.goo.ne.jp/jn/65281/meaning/m0u/%E9%BB%92%E5%B1%B1/>

자주 오류를 범하는 함정이 바로 이 대목이다.

한국어로 ‘榮光’과 ‘光榮’은 모두 ‘아름답게 빛나는 영예’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그러나 일본어에도 「榮光」와 「光榮」가 있지만 한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가려 써야 한다.

일본어 「榮光」는 「輝かしいいほまれ。大きな名誉。(커다란 명예)」³⁴⁾를 뜻한다. 요컨대 ‘난관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들은 감당해 내기 어려운 일이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고 이루어낸 커다란 명예의 상태’ 즉, 위 예(8)처럼 ‘그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영광을 손에 넣었다.’의 경우에 적절한 일본어 표현이다.

- (9) 아빠 옆에 있는 아줌마 이쁘지? 엄마 말로는 그냥 친한 동창이었다고 하는데... 팔짱까지 끼고 사진 찍은거 보면 좀 수상하지 않나? 꼭 애인 같지?

「(声)お父さんの隣の人きれいでしょ?お母さんとの話だと、単に仲のよい同級生だったそうだけど...腕を組んで写真を撮るなんて、ちょっと怪しくない?まるで恋人同士みたいでしょ?」
『冬のソナタ, p.45』

- (10) 난 민형씨 걱정돼서 왔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있고... 비아냥대듯 뭐? 민형씨가 준상이일 줄도 모른다고...? 왜...?

「わたし、ミニョンさんが心配で来たのに、こんな話にもならないことと言って...(皮肉っぽく) 何よ、ミニョンさんがジュンサンかもしれないですって...?どうして?

『冬のソナタ, p.194』

- (11) 怪しい話だとかをくくっていたが、一時間ほどして女が女中に連れられて来ると、島村はおやと居住まいを直した。直ぐ立ち上がって行こうとする女中の袖を女がとらえて、またそこに坐らせた。
『雪国 (上), p.28』

의심스러운 이야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한 시간쯤 지나서 여종업원이 여자를 데리고 오자, 시마무라는 “아니?” 하고 앓음새를 고쳤다. 바로 일어서서 나가려는 여종업원의 소매를 여자가 붙들어서 다시 거기에 앉혔다.
『설국(上), p.29』

- (12) 翌日何の気もなく教場へはいると、黒板一杯ぐらいな大きな字で、天麩羅先生とかいてある。おれの顔を見てみんなわあと笑った。おれは馬鹿馬鹿しいから、天麩羅を食っちゃ可笑(おか)しいかと聞いた。すると生徒の一人(ひとり)が、しかし四杯は過ぎるぞな、もし、と云った。四杯食おうが五杯食おうがおれの錢でおれが食うのに文句があるもんか

34) <http://dictionary.goo.ne.jp/srch/jn/%E6%A0%84%E5%85%89/m0u/>

と、さっさと講義を済まして控所へ帰って来た。 『坊っちゃん, p.279』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교실에 들어갔더니 칠판 가득 커다란 글씨로 ‘튀김 메밀 설탕’이라고
 써어 있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고는 모두 와아 하고 웃어 댔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튀김 메밀 먹는 게 그리도 우스우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네 그릇은
 너무하잖아유.” 한다. 네 그릇을 먹었더라도 내 돈으로 내가 먹는데 무슨 잔소리냐고 일갈하
 고는 얼른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도련님, p.59』

- (13) 「まだ何とも言えないよ。一可能性と言っても、まだ、まるで影みたいにあいまいなものだ。
 だけどーとにかく、きいてみたいんだ」 『重要な部分, p.130』
 “아직 뭐라고도 할 수 없어. - 가능성이라고 해도 아직 마치 그림자처럼 애매한 거야. 그렇지
 만 - 하여간 물어보고 싶어” 『중요한 부분, p.130』

- (14) 彼は曖昧な返事しかしなかった。 『命, p.7』
 그는 애매한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 『생명, p.22』

위 예(13)~예(14)에서 일본어「曖昧」는 한국어 ‘모호(模糊)’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이다. 원래
 우리말에서 ‘애매하다’는 ‘불분명하다’는 뜻의 한자어 ‘애매(曖昧)하다’가 아니라 순우리말로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였다.³⁵⁾ 그러므로 위
 번역 예(13)에서「まるで影みたいにあいまいなものだ。」의 번역은 ‘그림자처럼 모호한 거야.’
 로 번역하는 것이 우리말에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마찬가지로 번역 예(14)에서「彼は曖昧な
 返事しかしなかった。」의 번역도 ‘그는 모호한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의 번역이 ‘그는 애매한
 대답밖에 하지 않았다.’보다 우리말에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모호하다’의 경우도 순우리말인
 ‘알쏭달쏭하다’, ‘아리송하다’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 (15) 「お寿司を食べたかったけど、トロもウニも売り切れたみたいだから」女医が皮肉を言った。
 『空中ブランコ, p.115』
 “초밥 먹고 싶었는데 다랑어니 장어니. 몽땅 사라졌던데.” 여의사가 빈정거렸다.
 『공중그네, p.133』

35) ‘애매’는 ‘애매하다’의 어근이다.

【속담】 (예) 애매한 두꺼비(거북이) 돌에 치였다. → 아무런 죄도 없는 두꺼비가 돌 밑에 들어가 있다가
 치여 죽게 되었다는 뜻으로, 애매하게 화를 당하거나 벌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형용사】 (예)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드니까 마른하늘에 생벼락이 안 내릴까.(김유정, 『두포전』)

【부사】 (예) 애매히 매를 맞다. /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애매히 또 무참히 쓰러져 간 육이오도 그는
 무사히 넘겼고.....(손창섭, 『혈서』) <출처: 『표준국어대사전』(1999)>

- (16) 私の姑も、絵と歌を収めた小さな本を出したことがある。しかし、姑はそれを実に慎ましくした。ほんとうに親しい人にしか送らなかったのである。病身だったこともあって、出版記念会らしいものなどもやらなかった。『完本戒老録 p.38』

나의 시어머니도 그림과 시를 수록한 작은 책을 출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책 권리를 대단히 신중하게 하셨다. 정말로 친한 사람 이외에는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병환 중이기도 하여 출판기념회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 pp.46-47』

- (17) 自他共に認める病院嫌いのトラウマの舞台がまさにこの場所なのだ。ところがママにはそういう感性が一切欠落していて、蓄膿の治療ぐらいのことでも平気でここを利用してた。『ラブレター, p.77』

자타 공히 인정하는 병원 공포증이 생긴 무대가 바로 이곳인 것이다. 그런데 엄마에게는 그런 감성이 일체 결여되어 있어서 축농증 치료 정도를 하면서도 예사로 이곳을 이용하였다.

『러브레터, p.71』

일본어 「一切」은 뒤에 부정문이 올 때는 ‘일절’로 번역하며, ‘죄다, 모든 것’을 뜻할 때는 ‘일체’로 번역한다.³⁶⁾ 따라서 위의 번역 예(17)에서 일본어 「一切」은 ‘일절’로 번역하는 게 맞다. 따라서 예(17)에서 「そういう感性が一切欠落していて」의 번역은 ‘그런 감성이 일체 결여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감성이 일절 결여되어 있어서’가 우리말 어법에 맞는 번역이다.

- (18) 中学校へはいつて、上品も下品も区別が出来ないのは気の毒なものだ」と云って六人を逐っ放してやった。

중학교에 들어와서 점잖은 짓과 비열한 짓을 구별도 못 한다면 불쌍한 일이다” 하고 여섯 놈을 놓아주었다.

[출처: 韓日並列Corpus檢索]

지금까지 예(5)~예(18)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일 동형이의(同形異義) 한자어인 ‘가짜동

36) 일절(一切) 【부사】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사물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에 쓰는 말. (예) 출입을 일절 금하다. /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 그는 고향을 떠난 후로 연락을 일절 끊었다.

일체(一切) 【명사】 모든 것 (예) 도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다. / 그는 재산 일체를 학교에 기부하였다. / 이 가게는 음료 종류의 일체를 갖추고 있다.

【부사】 1. 모든 것을 다. (예) 걱정 근심일랑 일체 털어버리고 자, 즐겁게 술이나 마시자.

2. ‘일절一切’의 잘못. <출처: 『표준국어대사전』(1999)>

죽어’는 번역작업 및 번역 교육 현장에서 한일, 일한 양방향으로 언어간섭이 일어나기 쉬운 항목이므로 특히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 마치며

본고는 번역작업 및 번역 교육 현장에서 오류와 오용의 소지가 많은 ‘한·일 동형이의 한자어(同形異義漢字語)’인 ‘가짜동족어’에 주목하여 언어간섭과 관련지어 분석·고찰한 것이다.

언어간섭이란 두 가지 이상의 언어 접촉으로 인해 한쪽 혹은 양쪽 언어에서 발생하는 규범 이탈이나 규범 변경을 말한다.

한자의 형태가 같아도(同形) 의미가 다르거나(異義), 나아가 어의(語義, lexical meaning)의 폭에 차이가 있는 ‘가짜동족어’의 지식 부재에서 비롯된 잘못된 잣은 오류 및 제 문제는 본고에서 고찰한 ‘韓·日 漢字語’뿐 아니라 ‘韓·中·日 漢字語’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간섭 현상 중 하나이다.

특히 ‘가짜동족어’의 인식 부족은 한·일, 일한 담화 구사 및 작문 운용, 표현활용 면에서는 물론 번역작업 시에도 오역 및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예견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가짜동족어’의 개념과 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전 인지와 이해 및 철저한 교육과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參考文獻】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p.111
 박경자 외(1994) 『언어 교수학』 박영사, p.136
 박여성(2002a) 「번역 교육을 위한 번역 파라디그마의 효용성」 『지역학논집』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지역학 연구소, pp.219-259
 이희재(2009) 『번역의 탄생』 교양인, p.246
 조상은(2004) 「TAP(Think-Aloud Protocol)에 나타난 일한번역학습자의 번역 성향」 『통번역교육연구』 2권 1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55-78
 오경순(2009) 「韓日 兩言語의 翻譯과 ‘가짜동족어(false friends)’」 『日本近代學研究』 第25輯, 韓國日本近代學會, pp.56-58
 _____(2010) 『번역투의 유혹』 이학사

<사전류 및 기타>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고종석 칼럼 <말들의 풍경 17. 우리말 안의 그들의 말>, 한국일보(2006.6.27)
 연세대학교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이기문(2004) 『동아새국어사전』 두산동아
 金田一京助 編(1997) 『新明解国語辞典』三省堂
 新村出 編(1987) 『広辞苑』岩波書店
 日本国語大辞典編集委員会(2003)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日本語教育学会編(1997) 『日本語教育事典』大修館書店
 佐藤貢悦・嚴錫仁(2009) 『日中韓同字異義小辞典』勉誠出版
 三省堂WebDictionary(<http://www.sanseido.net/>)
 山崎誠(2006)(国立国語研究所) 「国立国語研究所の語彙調査の歴史と課題」第12回 研究会, 東京大学教育学部
 現代日本語の語種分布(<http://user.keio.ac.jp/~rhotta/hello/2013-10-28-1.html>)
 goo辞書(<http://dictionary.goo.ne.jp/>)

<용례 출전>

- 김유곤 옮김(2000) 『생명』문학사상사
 권남희 옮김(1998) 『러브레터』집사재
 이영미 옮김(2005) 『공중그네』은행나무
 오경순 역(2014) 『나는 이렇게 나이들고 싶다』도서출판 리수
 _____ 역(2016) 『위험한 도덕주의자』MBC C&I
 양운옥 옮김(2007) 『도련님』(나쓰메 소세키), 좋은생각사람들
 다락원 출판부(2003) 『重要な部分』(星新一 外), 다락원(日韓대역문고 중급 5)
 _____(2004) 『설국雪國(上)』(川端康成), 다락원(日韓대역문고 중급 15)
 安岡明子訳(2003) 『冬のソナタで始める韓国語シナリオ対訳集』キネマ旬報社
 岩井俊二(1998) 『ラブレター』角川書店
 稲垣えみ子(2016) 『魂の退社』東洋経済新報社
 加来耕三(1999) 『教科書が教えない日本史の名場面』扶桑社
 北野 武(2015) 『新しい道徳』幻冬舎
 曾野綾子(1996) 『完本戒老録』祥伝社
 夏目漱石(1987) 『夏目漱石全集 2; 坊っちゃん』筑摩書房(ちくま文庫)
 柳美里(2000) 『命』小学館
 奥田英朗(2004) 『空中ブランコ』文芸春秋
 韓日並列Corpus檢索 : http://www.transkj_pe_kr

논문투고일 : 2021년 12월 20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08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번역과 언어간섭

- ‘가짜동족어(false friends)’를 중심으로 -

오경순

본고는 번역작업 및 번역 교육 현장에서 오류와 오용의 소지가 많은 ‘한일 동형이의 한자어(同形異義漢字語)’인 ‘가짜동족어’에 주목하여 언어간섭과 관련지어 분석·고찰한 것이다.

언어간섭이란 두 가지 이상의 언어 접촉으로 인해 한쪽 혹은 양쪽 언어에서 발생하는 규범 이탈이나 규범 변경을 말한다.

한자의 형태가 같아도(同形) 의미가 다르거나(異義), 나아가 어의(語義)의 폭에 차이가 있는 ‘가짜동족어’의 지식 부재에서 비롯된 잦은 오류 및 제 문제는 본고에서 고찰한 ‘韓日 漢字語’뿐 아니라 ‘韓中日 漢字語’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간섭 현상 중 하나이다.

‘가짜동족어’의 인식 부족은 한일, 일·한 담화 구사 및 작문 운용, 표현활용 면에서는 물론 번역작업 시에도 오용 및 오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예견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가짜동족어’의 개념과 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전 인지와 이해 및 철저한 교육과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Translation and Language Interference

- Focused on ‘False Friends’ -

Oh, Kyoung-Soon

This paper analyzes and studies ‘False Friends’, Chinese character based words which has different meaning between Korean and Japanese, that are prone to be errors and misused in the area of translation and its education.

Language interference refers to deviations from norms or changes in norms that occur in one or both languages, due to a contact between languages.

Frequent errors and problems caused by the lack of knowledge of ‘False Friends’, which have the same form of Chinese characters with different meaning or even different range of lexical meaning, are one of the representative linguistic interferences that can occur not onl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hinese words’ but also ‘Korean, Chinese, and Japanese Chinese words’, addressed in this paper.

Lack of recognition of ‘False Friends’ will be more likely to cause misuse and misinterpretation in speaking, writing, using express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as well as in translation work.

Therefore, to avoid such predicted errors, teachers and learners should thoroughly recognize problems of ‘False Friends’ and are required to be educated and studied in advance.